

(2026년 9월 28일 월요일 4면)

개롱골장군거리 노후간판 개선현장 점검

채승우 송파구의원(더불어민주당, 거여1동·가락2동·문정1동)은 지난 9월 17일(목) 가락2동 개롱골장군거리에서 진행 중인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개선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채 의원은 간판개선사업 주민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이 사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과정 전반을 살피고 있다. 이날 현장에는 같은 지역구인 박지효 의원(국민의힘, 거여1동·가락2동·문정1동)도 함께했다.

채승우 의원은 “개롱골장군거리는 주민들의 생활공간이자 지역 상인들의 생업이이어지는 중요한 골목상권”이라며 “간판개선사업이 단순히 낡은 간판을 교체하는데 그치지 않고 거리 전체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상권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